

관광전공 대학생의 진로역량 개발을 위한 진로개입 우선순위 분석*

김보경*, 김미경**

< 목 차 >

I. 서론	IV. 연구 결과
II. 이론적 배경	4-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2-1. 진로 탐색 및 결정과정 관련 선행연구 고찰	4-2. 주요인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분석 결과
2-2. 관광 분야에서의 진로 관련 선행연구 고찰	4-3. 세부요인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분석 결과
III. 연구 방법	V. 결론 및 제언
3-1. 평가항목 및 계층구조 설정	5-1. 연구 결과 요약
3-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참고문헌
	Abstract

-----< 요 약 >-----

이 연구는 호텔·관광 전공 대학생과 진로 지도자의 관점에서 중시되는 진로 개입 영역의 우선순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구·경북 지역의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호텔·관광 전공 3-4학년들과 전공 교수 및 진로/취업 관련 실무자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 학생과 진로 지도자 두 집단 모두 진로 역량 강화, 진로 기술 관리 요인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하였으며, 진로상담 요인의 경우 가장 낮은 중요도를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진로 지도자 집단의 경우 상대적으로 진로 개입 네트워크의 요인을 중요하게 평가하였다. 본 연구는 호텔·관광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 및 취업 관련 의사결정 과정의 향상을 위해 학생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진로 및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설계/운영하는 계기를 제공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키워드 : 계층적 의사결정, 진로개입, 진로결정, 호텔·관광 전공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B5A07106195)

* 제1저자,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bokyung83@hanmail.net

** 교신저자, 대구가톨릭대학교 호텔컨벤션학과 교수, mkagnes@cu.ac.kr

· 논문투고일 : 2022-10-28 · 수정일 : 2022-11-16 · 게재확정일 : 2022-11-24

I. 서 론

최근 청년 취업이 한 개인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언론매체를 통해 ‘고용 참사’라는 말을 어렵지 않게 접한다. 졸업하는 데 필요한 학점은 모두 채웠으나 직장을 구하지 못해 졸업을 미루거나, 취업 준비로 졸업식에 참석하지 않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등의 일련의 사례들은 우리나라 대학생이 처한 참담한 현실을 보여준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취업했다라도 다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10명 중 8명이 취업 이후,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상범, 2017).

관광 전공 학생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고용정보원(2017)에 따르면, 관광학과 졸업자의 고용률(정규직/비정규직 포함)은 75%에 불과하며 이 중 33.1%의 취업자만이 전공과 일치하는 직업을 가진 것으로 밝히고 있다(한국고용정보원, 2017). 이러한 현실은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관광 전공 대학생의 선호 진로 분야에 대해 살펴본 한 연구에 따르면, 선호하는 진로 분야(항공/컨벤션)와 실제 취업 분야(외식업)의 차이가 높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김난영, 2018). 다시 말해, 관광 관련 교육을 받은 인력들이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다른 직업군을 선택하고 있거나, 진로 분야에 대한 불만족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경우 중·고등학교에서 진로나 적성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의 부재와 대학에 들어가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적성과 장래희망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졸업 후 진로 미결정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성급히 직업을 결정하는 경우 취업을 하고 나서도 혼란을 경험하는 것으로 여겨진다(김지효, 2016). 진로 준비가 부족하거나 진로에 대한 가치관이 정립되지 못할 경우, 취업 실패의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이후 경력관리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김은애·진성미, 2015). 이뿐만이 아니다. 코로나19 상황의 발생으로 관광 산업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어 관광관련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 결정과 관련한 어려움이 더욱 증가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나리길·배소영, 2021). 이러한 이유로, 직업과 직무, 기업 혹은 기관의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직업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는 개입은 필요해 보인다(김은주·김민규, 2014).

대학생의 진로 의사결정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개인의 특성과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의 관계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 중에서도 전공 만족과 자기효능감은 학생들이 앞으로 진출하게 될 직업 세계에서 직업 만족과 성공을 이끄는 핵심 변수로 설명되고 있다(가령 Komarraju & Nadler, 2013; Milsom & Coughlin, 2015; Stead, LaVeck, Hurtado Rúa, 2022; 박인주·김화진, 2015; 방희원·조규관, 2018; 오현주·오성욱, 2022; 이한경, 2016). 한편, 관광 분야의 경우에는 진로 장벽요인이나(김수진·김진강, 2018; 방한승·최우성·임상현, 2017; 최규환·정호균, 2018), 전공에 따른 특수성을 반영한 인턴

십의 경험과 진로 결정간의 관계 연구(김은주, 2018; 정미연·김형곤, 2019; 진진희·조민호, 2019),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요인(박영기·김민준, 2022; 정강국, 2019; 정영미, 2019) 등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 같은 연구 성과는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들을 파악하고 진로지원 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할 것이다. 그러나 호텔·관광 전공 학생들이 대학 재학 시 참여하는 진로탐색이나 취업 준비활동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어떠한 방향의 진로개입 방식을 중요시하는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진로개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연구의 경우 연구대상의 집단이 대부분 진로 지도를 받는 학생이거나 진로 지도의 역할을 지니고 있는 전공 교수, 진로 및 취업 전문가로 특정 집단의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통합적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강경연·강혜영, 2019; 김지영·임수진·김형남, 2016; 박가열, 2009 등).

이러한 취지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호텔·관광 전공 대학생들이 전공과 연계된 직업군을 선택하고, 자신의 적성과 역량을 기르기 위해 대학 및 학부과정에서 중요시 여기는 진로개입 영역 및 요소에서의 우선순위에 대해 살펴보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동시에 호텔·관광 전공 학생들과 전공 교수 및 진로 지도 실무자(이하, 진로 지도의 역할을 지닌 ‘진로 지도자’로 명명함)들이 우선시하는 진로개입 영역 및 요소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간의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수행은 대학 및 관련 학과 차원에서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진로지도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II. 이론적 배경

2.1 진로 탐색 및 결정과정 관련 선행연구 고찰

진로(進路)란,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며, 한 개인의 일생에 걸친 직업발달 과정이나 일생동안 수행하는 역할의 총체적인 개념을 일컫는다(정강국, 2019; 정영미, 2019). 또한, 진로결정은 자신의 진로 선택에 대한 확신의 정도로 이해된다(정강국, 2019).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 적성, 흥미 등을 점검하고 직업 세계에 대한 정보(현황, 전망, 입직 방법, 작업 환경 등)를 수집하며, 진로를 선택하는데 요구되는 자격증이나 면허 등을 취득하는 준비 행동 과정이 수반된다(김미성·김선정·윤유식, 2019; 천민호, 2017). 이 같은 진로 준비 행동을 강화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의 지원을 진로개입(career invention)이라 할 수 있다. 한시완(2016)은 Oliver & Spokane(1998)의 정의를 바탕으로 진로개입이란, 개인의 진로발달을 향상시키기 위한 진로상담, 워크숍 및 프로그램, 진로체험(현장실습, 인턴십) 등을 포함하는 교육적 개입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진로 개입의 유형은 대개

자기이해를 위한 진로 관련 심리검사, 교과를 통한 진로교육, 진로 관련 강연 등과 같은 텍스트 중심의 진로교육과 직업 체험활동이나 기업체 혹은 기관 견학 프로그램 등과 같은 체험 중심의 진로교육으로 범주화 되고 있다(최윤정, 2012; 한시완, 2016). 그러므로 진로 개입이란, 한 개인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수행하고자 하는 역할에 대한 방향 설정과 가치관의 정립 과정을 지원하는 행위 또는 활동으로 정의 할 수 있을 것이다. 진로 탐색 및 결정 과정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Abdullah et al.(2018)은 올바른 진로 결정을 위해서는 자기 지식(SK)과 경력 의사 결정(CDM), 직업 탐구(OE)와 관련한 역량을 강화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 Komarraju & Nadler(2013)는 성공적인 진로결정을 위해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전략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Krieshok, Black & Mckay(2009)는 진로 결정을 위해서는 자신의 직업관에 대한 탐색과 함께 진로 선택의 기회를 넓힐 수 있는 다양한 분야로의 직업체험 기회를 가지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김지효(2016)는 학생들이 대학 입학 후 진로 미결정 상태로 지내다가 대학 졸업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진로 탐색 및 진로 결정 행동을 보임을 확인하고 있다. 임은미(2011)는 대학생의 진로 결정 과정을 입학, 학과 적응, 희망 직업 구체화, 진로 준비 행동, 진로 결정 공고화의 다섯 단계로 구분하였으며, 진로 결정 과정에 개입하는 주요 요인에 대해 부모와의 진로 선택 갈등 여부, 소속 전공과 학과에 대한 자부심, 지속적인 환경적 지지로 제시하였다. 대학의 진로교육 만족도 요인을 살펴본 최영준(2022)은 전반적 만족도와 강사, 교육 방법, 교육내용, 시설·환경, 교육 관련 서비스 만족도 변인 중 진로교육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강사, 교육내용, 시설·환경 순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AHP를 활용한 진로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강경연·강혜영(2019)은 대학생 진로개발역량을 위한 진로교과목의 교육내용을 유형화 하고자 하였으며, 연구결과 자기이해 및 긍정적 자아정체감 확립 영역, 타인과의 긍정적 상호작용 이해 및 실천 영역, 직업생활에 필요한 직업의식과 태도 고취 영역, 직업 및 산업동향의 이해 영역, 진로정보 탐색과 활용 영역, 진로의사결정 영역, 평생학습 중요성 인식 및 참여 영역, 진로계획 수립·실천 및 관리영역, 구직역량 함양 영역으로 제시하였다.

김지영·임수진·김형남(2016)은 무용전공자들을 위한 진로개입 접근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직업지도(다양한 무용직업 세계의 이해), 진로 교육(구체적인 진로설계와 목표설정), 진로상담(삶과 연계한 무용진로의 내러티브 지도), 진로개입 네트워크(무용일자리 박람회 및 워크숍 정례화) 요소가 가장 중요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양구·권형일(2015)는 진로 결정유형을 살펴보고자 계층화 분석법을 활용하였으며, 그 결과 진로 결정유형을 6가지(연구형, 교육형, 지도형, 치료형, 사무형, 현장형)로 제시하고 있다. 대학생 진로 발달수준별 진로서비스 요구도를 살펴보고자 한 윤혜영·장은영·박빛나(2017)는 대학생의 진로 서비스 영역을 자기이해, 진로정보, 의사결정 및 진로계획, 구직기술, 대인관계(리더쉽/

갈등관리 능력 등), 자기관리, 기타(외국어 능력개발, 해외 취업 준비 등) 등 총 7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2.2 관광 분야에서의 진로 관련 선행연구 고찰

관광 분야에서의 진로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관광전공 대학생들의 선호 진로 분야, 진로 결정, 진로 이해 정도, 진로 만족 등을 살펴본 김난영(2018)은 관광전공 대학생들은 항공업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며, 전시·컨벤션업에 대한 선호도가 보통 이상이고 외식업은 보통이하 수준의 선호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 취업분야는 외식업이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항공업 비중은 작아 현실과 이상 간의 격차가 큰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전공에 대한 만족, 관광 분야 진로에 대한 확신은 있지만, 취업 진로를 위한 자기 이해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관광전공 학생들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전문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김은주(2018)는 관광전공 학생들의 인턴십 경험과 이에 따른 만족감은 전공 분야로의 진로 결정 및 진로 확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또한, 관광 답사 만족이 학과 몰입 및 진로 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 천민호(2017)는 관광 답사 만족 요인이 학과 몰입과 추후 진로 준비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최규환·정호균(2018)은 관광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요소를 살펴보았으며, 이 중에서도 진로 관련 정보가 많을수록 진로 미결정 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다음으로 관광 분야에서의 AHP를 활용한 진로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상범·박수진·이수범(2012)은 항공사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항공기내 영어구사, 일본어 구사능력, 직업관과 프로의식, 나에 대한 이해에 대한 교육이 먼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항공기 특성상 안전 및 승무원의 기본자세 및 태도에 관한 프로그램 역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백지영·이기중(2017)은 승무원 교육 프로그램 우선순위를 살펴봄으로써, 서비스 자세/태도, 식음료 전문지식, 좌석/시스템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흐름을 통해 연구자들이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진로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부적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입증함으로써 호텔·관광 전공 학생들의 진로 의사결정 과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자 함을 엿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전공 학생들의 진로개입과 관련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변화된 사회 환경과 요구에 맞추어 관광전공 학생들에게 적용되어야 할 진로개

입(진로 상담, 직업지도, 진로 네트워크 형성 등) 영역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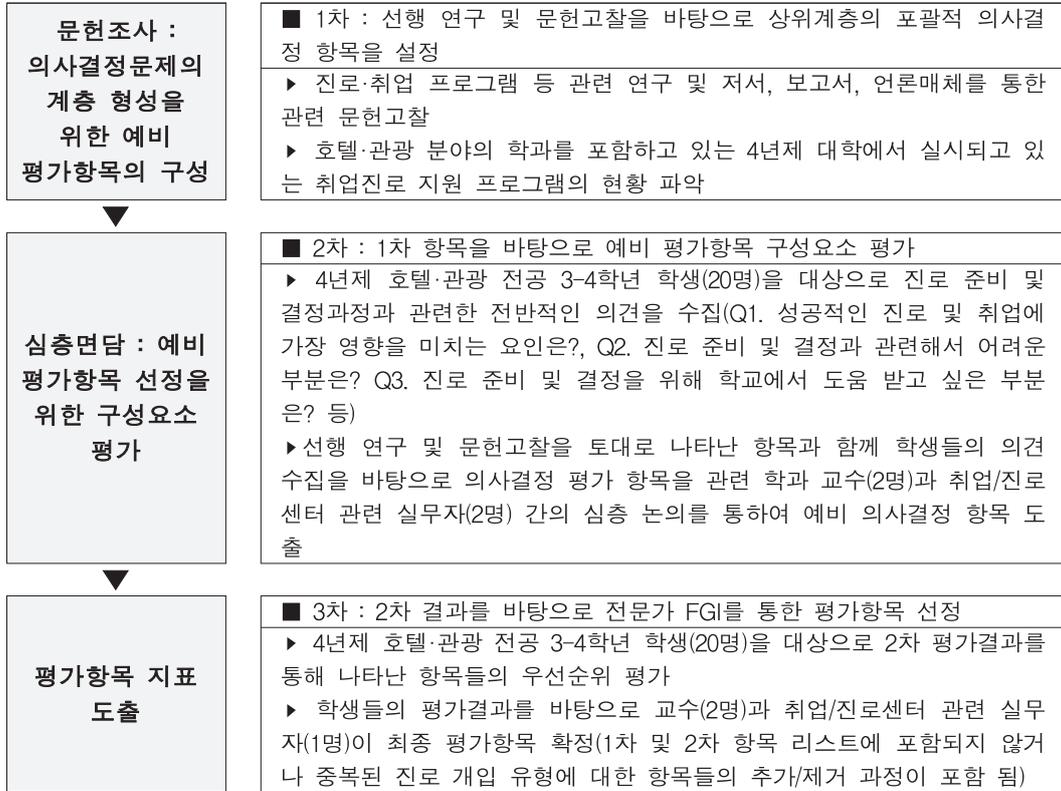
3.1 평가항목 및 계층구조 설정

AHP 기법은 전문가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다수의 속성들을 계층 분류를 통해 각 속성의 중요도를 파악해 최적 대안을 선정하는 평가 도구로 정책 결정과 문제 상화를 해결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매우 중요한 데이터로 활용되고 있다(Hassan & Lee, 2019). 본 연구에서는 호텔·관광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지도를 위한 체계적인 진로개입 방안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계층적 의사결정 기법을 활용하였다. Saaty(1979)에 의하여 개발된 AHP 기법은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의사결정 평가 도구이다(Joshi, Sharma & Singh, 2020). 이 기법은 의사결정을 할 문제를 몇 개의 계층으로 분류하여 의사결정계층을 구조화한 후, 각 계층의 요소들을 쌍대비교 방식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과 덜 중요한 요인을 도출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다(Curry & Moutinho, 1992; 안소현·김남현·이충기, 2015).

이 기법의 가장 큰 장점은 계량적 접근이 어려운 의사결정 상황을 계층화와 쌍대 비교를 통해 단순화함으로써, 정량적 요소와 정성적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여 평가의 논리적 일관성을 측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이정실, 2006; 이정실·박봉규, 2014, 이후석, 2010). 또한 이 기법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계량화 한다는 점에서 많은 수의 응답자보다 관련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의 전문성과 적절성 등이 중요시된다(주진영·남정민·이슬기, 2022). 이 같은 의견에 대해 Lynn(1986)은 실무지식과 전문적 경험이 있는 집단의 특성이 동질적일 때 전문가 집단의 수는 3명 이상이면 충분하다고 언급한다. 이에 진로개입 방안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하여 AHP기법의 활용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진로개입 영역 및 평가 항목의 주요인과 세부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관련 선행연구를 토대로 평가항목을 도출하였다(〈표 1〉참조). 이후, 선행연구를 통하여 정리된 평가항목들의 타당성 및 1차 항목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의 추가 및 제거 등 평가요인의 지표 도출을 위하여 호텔·관광 전공 3-4학년 학생(20명)과 관련 전문가(교수 2명 및 진로 및 취업 담당 실무자 2명)와의 심층적 논의과정을 통하여 평가 항목의 지표를 도출하였다. 다음 〈그림 1〉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평가항목들의 절차적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그림 1> AHP 계층 지표 도출 과정



또한, 진로개입 영역 및 평가 항목의 주요인과 세부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살펴본 뒤, 이를 바탕으로 요인을 추출하여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이에 따라 설문문을 시행하였다. 주요인과 세부요인의 조작적 정의 및 항목의 구성요소는 <표 1>과 같다.

<표 1> 계층적 선택기준의 세부항목 및 조작적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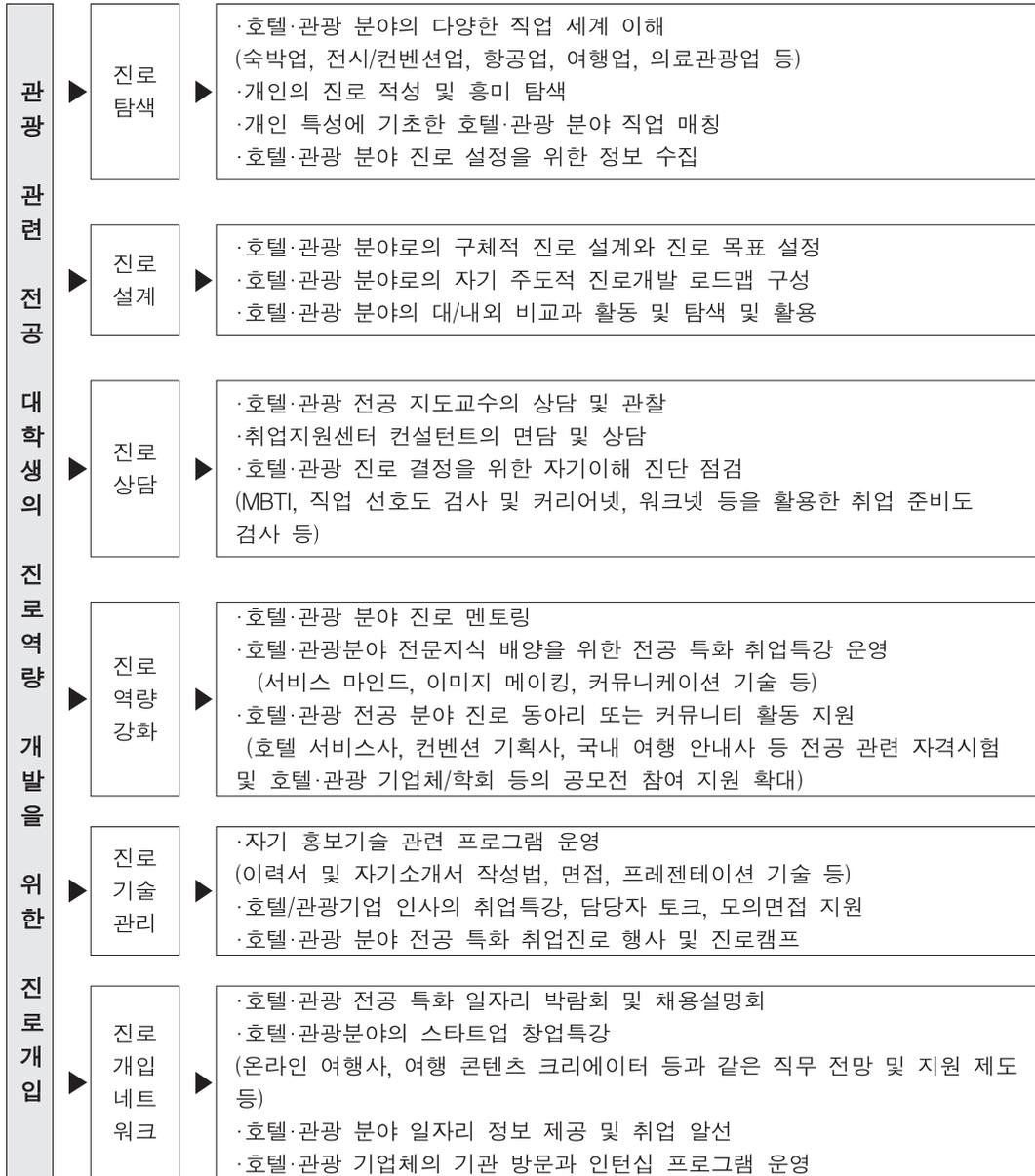
항목	구성요소	선행연구
진로 탐색	자신의 흥미, 가치관 등의 특성과 환경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호텔·관광 분야의 다양한 진로를 찾아볼 수 있도록 지원	강경연·강혜영(2019) 김지영·임수진·김형남(2016) 김지호·이정은(2016) 노정희·최진영·장지영(2015) 정윤경·방혜진·최진영(2017)
	호텔·관광 분야의 다양한 직업 세계 이해 (숙박업, 전시/컨벤션업, 항공업, 여행업, 의료관광업 등)	
	개인의 진로 적성 및 흥미 탐색	
	개인 특성에 기초한 호텔·관광 분야 직업 매칭	
	호텔·관광 분야 진로 설정을 위한 정보 수집	

관광전공 대학생의 진로역량 개발을 위한 진로개입 우선순위 분석

진로 설계	(호텔·관광 분야로의) 자신의 진로 목표를 구체화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 전략을 계획하고 실행,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강경연·강혜영(2019) 김지영·임수진·김형남(2016)
	호텔·관광 분야로의 구체적 진로 설계와 진로 목표 설정	
	호텔·관광 분야로의 자기주도적 진로개발 로드맵 구성	
	호텔·관광 분야의 대/내외 비교과 활동 및 탐색 및 활용	
진로 상담	호텔·관광 분야로의 진로 명확성 향상을 위한 개인 및 집단 진로상담	김지영·임수진·김형남(2016) 노정희·최진영·장지영(2015) 안소연·오영주·임은순(2017) 최귀덕(2002)
	호텔·관광 전공 지도교수의 상담 및 관찰	
	취업지원센터 컨설턴트의 면담 및 상담	
	호텔·관광 진로 결정을 위한 자기이해 진단 점검 (MBTI, 직업 선호도 검사 및 커리어넷, 워크넷 등을 활용한 취업 준비도 검사 등)	
진로 역량 강화	호텔·관광 분야로의 진로 준비에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소유하기 위해 학생 스스로 희망 진로 확산 증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참여하도록 지원	구본기·조희정(2007) 김난영(2018) 김성규 외(2015) 김성남·변정현(2012) 노정희·최진영·장지영(2015) 안소현·김남현·이충기(2015) 최귀덕(2002)
	호텔·관광 분야 진로 멘토링	
	호텔·관광분야 전문지식 배양을 위한 전공 특화 취업특강 운영 (서비스 마인드, 이미지메이킹, 커뮤니케이션 기술 등)	
	호텔·관광 전공 분야 진로 동아리 또는 커뮤니티 활동 지원 (호텔 서비스사, 컨벤션 기획사, 국내여행안내사 등 전공 관련 자격시험 및 호텔·관광 기업체/학회 등의 공모전 참여 지원 확대)	
진로 기술 관리	호텔·관광 분야로의 진로 준비에 필요한 실무적인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학습하도록 지원	김성남·변정현(2012) 김지영·임수진·김형남(2016) 노정희·최진영·장지영(2015) 안소현·김남현·이충기(2015) 최귀덕(2002)
	자기 홍보기술 관련 프로그램 운영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 프리젠테이션 기술 등)	
	호텔/관광기업 인사의 취업특강, 담당자 토크, 모의면접 지원	
	호텔·관광 분야 전공 특화 취업진로 행사 및 진로캠프	
진로 개입 네트워크	호텔·관광 관련 산업 일자리 지원을 위한 민/관/학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강경연·강혜영(2019) 김성남·변정현(2012) 김지영·임수진·김형남(2016) 안소현·김남현·이충기(2015) 정윤경·방혜진·최진영(2017) 최귀덕(2002)
	호텔·관광 전공 특화 일자리 박람회 및 채용설명회	
	호텔·관광분야의 스타트업 창업특강(온라인 여행사, 여행 콘텐츠 크리에이터 등과 같은 직무 전망 및 지원 제도 등)	
	호텔·관광 분야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취업 알선	
	호텔·관광 기업체의 기관 방문과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그 결과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7개의 주 항목과 20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도출된 항목들은 AHP 분석의 쌍대 비교의 요인으로 활용하였다.

<그림 2> AHP 계층 구조



3.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대구·경북 지역의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호텔·관광 전공 3~4학년과 각 대학의 전공 교수 및 진로·취업 관련 실무자들을 연구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e-mail과 모바일 설문지 및 면담조사의 병행을 통하여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의 선정 배경은 수도권에 있는 대학보다 비수도권에 있는 대학의 학생들이 진로 결정 및 취업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과(한국교육개발원, 2018), 대학 진학 이후 1~2년 동안의 경우 과반수가 자신의 미래에 대해 계획 시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졸업 시기가 가까워져서 진로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학 내 진로지도를 경험한 학생의 대부분이 3~4학년에 집중되어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하였다(김지효, 2016; 박가열, 2009; 박영기·김민준, 2022).

이로써,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대구·경북 지역 소재지의 4년제 대학 중에서 호텔·관광 관련 전공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 5곳의 3~4학년 전공자 55명과 전공 교수 6명, 해당 대학 내 진로·취업 관련 실무자 20명 등 총 81명을 대상으로 설문 응답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은 이후, 설문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설문지 배부 이후, 쌍대응답 형태에 대한 난해성으로 인한 응답거부(학생: 11명, 실무자: 3명)와 응답 중 응답을 포기하는 미완료 응답자(학생: 4명, 실무자: 2명) 및 응답 결과의 비일관성으로 인한 재응답 요청 거부(학생: 8명, 실무자: 2명)등으로 인해 응답을 완료한 응답자는 학생 32명, 교수 6명, 실무 담당자 13명 총 51명으로 확인되었다. 설문 조사기간은 20년 10월 26일부터 11월 23일까지 약 한달 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회수된 설문지는 인구통계적 특성을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SPSS 24.0을 이용하였고, 계층 분석 의사결정 방법의 분석을 위해서는 웹 기반 AHP분석 소프트웨어인 메이크 잇(Make It ®)1)을 활용하였다. AHP기법에서는 응답자들의 응답 내용이 논리적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판단하기 위하여 C.R.(consistency ratio: 일관도)값이 0.1이내이면 합리적인 일관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하며, 0.2까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권고된다(Saaty, 1982; Joshi, Sharma & Singh, 2020; 이재곤·임경환, 2017; 주진영·남정민·이슬기, 2022). 만약에 일관성 값이 0.2를 초과하는 경우 일관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C.R.값이 0.2이상인 경우 재응답 하도록 하였다.

IV. 연구 결과

4.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한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교수/실무자)		빈도	백분율(%)	구분 (교수/실무자)		빈도	백분율(%)	
대학	C대학(경북)	7	36.8	직위	실무자	13	68.4	
	D대학(경북)	4	21.1		교수	6	31.6	
	K대학(경북)	1	5.3	연령	20대	2	10.5	
	K대학(대구)	6	31.6		30대	12	63.2	
	U대학(경북)	1	5.3		40대	2	10.5	
소속	학과	관광	4	21.1	지역	50대	3	15.8
		호텔	2	10.5		경북	13	68.4
	지원처	대학일자리센터	4	21.1	대구	6	31.6	
		진로취업지원팀	7	36.8	성별	여성	13	68.4
	창업교육지원팀	1	5.3	남성		6	31.6	
	현장실습지원팀	1	5.3	합계(교수 및 실무자)	19	100.0		
	구분(대학생)		빈도	백분율(%)	구분(대학생)		빈도	백분율(%)
대학	C대학(경북)	11	34.4	학년	3학년	25	78.1	
	D대학(경북)	5	15.6		4학년	7	21.9	
	K대학(경북)	7	21.9	지역	경북	23	71.9	
	K대학(대구)	9	28.1		대구	9	28.1	
학과	관광	25	78.1	성별	여자	21	65.6	
	호텔	7	21.9		남자	11	34.4	
합계(학생)		32	100.0	총계		51	100.0	

4.2 제1계층 주요인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분석 결과

호텔·관광 전공 대학생의 보다 성공적인 진로 역량 개발을 위한 진로개입 영역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살펴보고자 한다. 수집된 자료의 전체 일관성 비율은 분석에 적합한 값인 0.002로 도출되었기에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계층별 중요도 분석 및 계층별 중요도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구체적으로 6가지 상위요인 중 진로역량 강화 요인이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제시되었으며, 진로기술관리, 진로 탐색, 진로 설계, 진로 개입 네트워크 순으로 상대적 중요도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진로상담의 경우 가장 낮은 순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표 3> 주요인 상대적 중요도 평가

주항목	Relative Importance	Ranking
진로 탐색	0.159	3
진로 설계	0.146	4
진로상담	0.115	6
진로역량 강화	0.258	1
진로기술관리	0.178	2
진로 개입 네트워크	0.144	5
비일관성 비율	0.002	

다음 <표 4>는 주요인에 대한 집단별 상대적 중요도에 따른 분석결과이다. 우선, 진로 지도자 집단의 분석결과, 6가지 상위요인 중 진로역량 강화 요인이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제시되었으며, 뒤를 이어 진로기술관리, 진로 개입 네트워크 요인이 상대적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 탐색, 진로상담, 진로 설계 순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호텔·관광 전공 학생 집단의 경우 진로역량 강화, 진로기술관리 요인 순으로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뒤를 이어 진로 탐색, 진로 설계, 진로 개입 네트워크, 진로상담 순으로 확인되었다.

<표 4> 집단별 주요인 상대적 중요도 평가

주항목	전공 교수 및 진로 실무자		호텔·관광 관련 전공 학생	
	Relative Importance	Ranking	Relative Importance	Ranking
진로 탐색	0.145	4	0.167	3
진로 설계	0.127	6	0.159	4
진로상담	0.130	5	0.107	6
진로역량 강화	0.259	1	0.256	1
진로기술관리	0.191	2	0.169	2
진로 개입네트워크	0.149	3	0.142	5
비일관성 비율	0.006		0.004	

4.3 제2계층 세부요인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분석 결과

<계층 3>의 하위 요인 간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우선 각 상위요인 별 일관성 지수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CR값이 모두 10% 이하로 나타나 일관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3.1 세부요인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다음 <표 5>는 주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요인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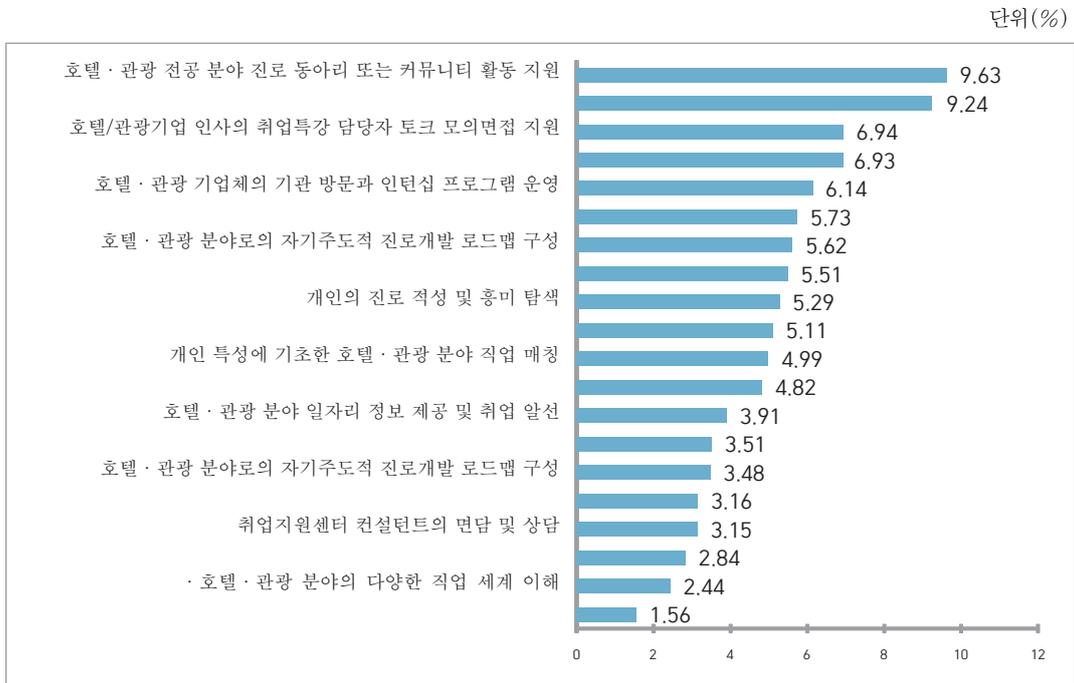
<표 5> 세분류 하위요인별 가중치 및 종합가중치 결과

주항목 (CR)	세부항목	Local Weights	Local Ranking	Global Weights	Global Ranking
진로 탐색 (0.001)	개인의 진로 적성 및 흥미 탐색	0.333	1	0.053	3 (0.159)
	호텔·관광 분야의 다양한 직업 세계 이해	0.153	4	0.024	
	개인 특성에 기초한 호텔·관광 분야 직업 매칭	0.314	2	0.050	
	호텔·관광 분야 진로 설정을 위한 정보 수집	0.199	3	0.032	
진로 설계 (0.005)	호텔·관광 분야로의 구체적 진로 설계와 진로 목표 설정	0.385	1	0.056	4 (0.146)
	호텔·관광 분야로의 자기주도적 진로개발 로드맵 구성	0.238	3	0.035	
	호텔·관광 분야의 대/내외 비교과 활동 및 탐색 및 활용	0.377	2	0.055	
진로 상담 (0.000)	호텔·관광 전공 지도교수의 상담 및 관찰	0.306	2	0.035	6 (0.115)
	취업지원센터 컨설턴트의 면담 및 상담	0.275	3	0.032	
	호텔·관광 진로 결정을 위한 자기이해 진단 점검	0.420	1	0.048	
진로 역량 강화 (0.000)	호텔·관광 분야 진로 멘토링	0.358	2	0.092	1 (0.258)
	호텔·관광분야 전문지식 배양을 위한 전공 특화 취업특강 운영	0.269	3	0.069	
	호텔·관광 전공 분야 진로 동아리 또는 커뮤니티 활동 지원	0.373	1	0.096	
진로 기술 관리 (0.001)	자기 홍보기술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0.288	3	0.051	2 (0.178)
	호텔·관광기업 인사의 취업특강, 담당자 토크, 모의면접 지원	0.390	1	0.069	
	호텔·관광 분야 전공 특화 취업진로 행사 및 진로캠프	0.322	2	0.057	
진로 개입 네트 워크 (0.008)	호텔·관광 전공 특화 일자리 박람회 및 채용설명회	0.196	3	0.028	5 (0.144)
	호텔·관광 기업체의 기관 방문과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0.271	2	0.061	
	호텔·관광분야의 스타트업 창업특강	0.425	1	0.016	
	호텔·관광 분야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취업 알선	0.108	4	0.039	

그 결과, 진로 탐색 요인에 대한 하위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는 개인의 진로 적성 및 흥미 탐색(0.333), 개인 특성에 기초한 호텔·관광 분야 직업 매칭(0.314), 진로 설계를 위한 정보 수집(0.199), 다양한 직업 세계 이해(0.153) 순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진로 설계의 하위요인에 대해서는 진로 설계와 진로 목표 설정(0.385), 대/내외 비교과 활동 및 탐색 및 활용(0.377), 자기주도적 진로개발 로드맵 구성(0.238) 순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진로 상담의 하위요인에 대한 평가는 진로 결정을 위한 자기이해 진단 점검(0.420), 전공 지도교수의 상담 및 관찰(0.306), 취업지원센터 컨설턴트의 면담 및 상담(0.275) 순으로 나타났다. 진로역량 강화 요인의 하위요인의 경우에는 진로 동아리 또는 커뮤니티 활동 지원(0.373), 진로 멘토링(0.358), 전문지식 배양을 위한 전공 특화 취업특강 운영(0.269)으로 평가되었으며, 진로기술관리 요인의 하위 요인에 대한 평가는 기업 인사의 취업특강, 담당자 토크, 모의면접 지원(0.390), 전공 특화 취업진로 행사 및 진로캠프(0.322), 자기 홍보 기술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0.288) 순으로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진로 개입 네트워크 요인의 하위 요인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는 스타트업 창업특강(0.425), 기업체의 기관 방문과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0.271), 전공 특화 일자리 박람회 및 채용설명회(0.196),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취업 알선(0.108)의 순으로 제시되었다.

<그림 3> 최하위기준의 통합결과 순위



4.3.2 호텔·관광 관련 전공 학생 집단의 세부요인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다음 <표 6> 호텔·관광 전공 대학생 집단의 하위 요인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표 6> 하위요인별 가중치 및 종합가중치 결과(호텔·관광 관련 전공 학생)

주항목 (CR)	세부항목	Local Weights	Local Ranking	Global Weights	Global Ranking
진로 탐색 (0.002)	개인의 진로 적성 및 흥미 탐색	0.353	1	0.059	3 (0.167)
	호텔·관광 분야의 다양한 직업 세계 이해	0.159	4	0.027	
	개인 특성에 기초한 호텔·관광 분야 직업 매칭	0.328	2	0.055	
	호텔·관광 분야 진로 설정을 위한 정보 수집	0.161	3	0.027	
진로 설계 (0.006)	호텔·관광 분야로의 구체적 진로 설계와 진로 목표 설정	0.314	2	0.050	4 (0.159)
	호텔·관광 분야로의 자기주도적 진로개발 로드맵 구성	0.252	3	0.040	
	호텔·관광 분야의 대/내외 비교과 활동 및 탐색 및 활용	0.435	1	0.069	
진로 상담 (0.000)	호텔·관광 전공 지도교수의 상담 및 관찰	0.281	3	0.030	6 (0.107)
	취업지원센터 컨설턴트의 면담 및 상담	0.284	2	0.030	
	호텔·관광 진로 결정을 위한 자기이해 진단 점검	0.435	1	0.046	
진로 역량 강화 (0.000)	호텔·관광 분야 진로 멘토링	0.353	1	0.091	1 (0.256)
	호텔·관광분야 전문지식 배양을 위한 전공 특화 취업특강 운영	0.295	3	0.076	
	호텔·관광 전공 분야 진로 동아리 또는 커뮤니티 활동 지원	0.351	2	0.090	
진로 기술 관리 (0.002)	자기 홍보기술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0.288	3	0.049	2 (0.169)
	호텔·관광기업 인사의 취업특강, 담당자 토크, 모의면접 지원	0.383	1	0.065	
	호텔·관광 분야 전공 특화 취업진로 행사 및 진로캠프	0.329	2	0.056	
진로 개입 네트 워크 (0.008)	호텔·관광 전공 특화 일자리 박람회 및 채용설명회	0.199	3	0.028	5 (0.142)
	호텔·관광 기업체의 기관 방문과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0.302	2	0.055	
	호텔·관광분야의 스타트업 창업특강	0.391	1	0.015	
	호텔·관광 분야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취업 알선	0.107	4	0.043	

학생 집단의 하위 요인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분석결과, 개인의 진로 적성 및 흥미 탐색(0.353), 개인 특성에 기초한 호텔·관광 분야 직업 매칭(0.328)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진로 설정을 위한 정보 수집(0.161)과 다양한 직업 세계 이해(0.159)에 대한 평가요소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진로설계에 대한 평가요소의 상대적 중요도는 대/내외 비교과 활동 탐색 및 활용(0.435), 구체적 진로 설계와 진로 목표 설정(0.314), 자기주도적 진로개발 로드맵 구성(0.252) 순으로 나타났다. 진로상담 분야의 경우 진로 결정을 위한 자기이해 진단 점검(0.435), 취업지원센터 컨설턴트의 면담 및 상담(0.284), 전공 지도교수의 상담(0.281) 순으로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진로역량 강화에 요인에 대한 하위 평가요소의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보면, 진로 멘토링(0.383), 진로 동아리 또는 커뮤니티 활동 지원(0.351), 전공 특화 취업특강 운영(0.295) 순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진로기술관리 요인에 대한 하위 평가요소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해서는 기업 인사의 취업특강, 담당자 토크, 모의면접 지원(0.383)에 대하여 가장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전공 특화 취업진로 행사 및 진로캠프(0.329), 자기 홍보기술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0.288) 순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진로개입네트워크의 하위 평가요소의 상대적 중요도는 호텔·관광분야의 스타트업 창업특강(0.391),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0.302), 전공 특화 일자리 박람회 및 채용설명회(0.199),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취업 알선(0.107) 순으로 조사되었다.

4.3.3 진로 지도자 집단의 세부요인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진로 지도자 집단의 진로 탐색 요인에 대한 하위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개인의 진로 적성 및 흥미 탐색(0.295), 개인 특성에 기초한 호텔·관광 분야 직업 매칭(0.285), 진로 설정을 위한 정보 수집(0.279), 다양한 직업 세계 이해(0.141) 순으로 평가되었다. 진로설계 영역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는 진로 설계와 진로 목표 설정(0.513), 대/내외 비교과 활동 및 탐색 및 활용(0.281), 자기주도적 진로개발 로드맵 구성(0.205) 순으로 확인되었다. 진로상담의 경우, 진로 결정을 위한 자기이해 진단 점검(0.393) 항목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었으며, 전공 지도교수의 상담 및 관찰(0.349), 취업지원센터 컨설턴트의 면담 및 상담(0.258)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진로역량 강화 요인을 구성하는 하위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는 진로 동아리 또는 커뮤니티 활동 지원(0.410), 진로 멘토링(0.363), 전공 특화 취업특강 운영(0.227) 순으로 제시되었으며, 진로기술관리 요인에서는 기업 인사의 취업특강, 담당자 토크, 모의면접 지원(0.402), 전공 특화 취업진로 행사 및 진로캠프(0.311), 자기 홍보기술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0.287) 순으로 나타났다.

〈표 7〉 하위요인별 가중치 및 종합가중치 결과(진로 지도자)

주항목 (CR)	세부항목	Local Weights	Local Ranking	Global Weights	Global Ranking
진로 탐색 (0.002)	개인의 진로 적성 및 흥미 탐색	0.295	1	0.043	4 (0.145)
	호텔·관광 분야의 다양한 직업 세계 이해	0.141	4	0.020	
	개인 특성에 기초한 호텔·관광 분야 직업 매칭	0.285	2	0.041	
	호텔·관광 분야 진로 설정을 위한 정보 수집	0.279	3	0.040	
진로 설계 (0.003)	호텔·관광 분야로의 구체적 진로 설계와 진로 목표 설정	0.513	1	0.065	6 (0.127)
	호텔·관광 분야로의 자기주도적 진로개발 로드맵 구성	0.205	3	0.026	
	호텔·관광 분야의 대/내외 비교과 활동 및 탐색 및 활용	0.281	2	0.036	
진로 상담 (0.000)	호텔·관광 전공 지도교수의 상담 및 관찰	0.349	2	0.045	5 (0.130)
	취업지원센터 컨설턴트의 면담 및 상담	0.258	3	0.033	
	호텔·관광 진로 결정을 위한 자기이해 진단 점검	0.393	1	0.051	
진로 역량 강화 (0.000)	호텔·관광 분야 진로 멘토링	0.363	2	0.094	1 (0.259)
	호텔·관광분야 전문지식 배양을 위한 전공 특화 취업특강 운영	0.227	3	0.059	
	호텔·관광 전공 분야 진로 동아리 또는 커뮤니티 활동 지원	0.410	1	0.106	
진로 기술 관리 (0.000)	자기 홍보기술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0.287	3	0.055	2 (0.191)
	호텔/관광기업 인사의 취업특강, 담당자 토크, 모의면접 지원	0.402	1	0.077	
	호텔·관광 분야 전공 특화 취업진로 행사 및 진로캠프	0.311	2	0.059	
진로 개입 네트 워크 (0.011)	호텔·관광 전공 특화 일자리 박람회 및 채용설명회	0.189	3	0.028	3 (0.149)
	호텔·관광 기업체의 기관 방문과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0.221	2	0.072	
	호텔·관광분야의 스타트업 창업특강	0.481	1	0.016	
	호텔·관광 분야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취업 알선	0.108	4	0.033	

마지막으로 진로 개입 네트워크 요인을 구성하는 하위요인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는 스타트업 창업특강(0.481), 기업체의 기관 방문과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0.221), 전공 특화 일자리 박람회 및 채용설명회(0.189),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취업 알선(0.108) 순으로 평가되었다.

V. 결론 및 제언

5.1 연구 결과 요약

이 연구는 호텔·관광 전공 학생들의 보다 성공적인 진로역량 개발을 위하여 진로개입 영역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들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는 어떠한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이 과정에서 호텔·관광 전공 학생과 진로 지도자 집단 간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에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고찰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요약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인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에 대한 평가 결과 두 집단 모두 진로역량 강화, 진로기술관리 요인을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하였으며, 진로상담 요인의 경우 두 집단 모두에서 가장 낮은 중요도를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박가열(2009)의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종합대와 전문대를 막론하고 진로 및 취업 결정 시기가 가까워지는 학년으로 올라 갈수록 취업준비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진로개발 역량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직업 생활의 의미나 직업심리검사를 통한 자기 이해에 대한 요구도 역시 낮은 것으로 밝힌바 있다. 이에 본 연구의 연구 대상자 역시 호텔·관광 전공 3-4학년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주요인에 대한 집단 간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에 대한 평가 결과, 진로 지도자 집단의 경우 학생들의 성공적인 진로준비 및 진로결정을 위해 호텔·관광 기업체의 기관 방문이나 직무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같은 보다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진로 개입 네트워크 영역을 상대적으로 중요시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비교과 활동 및 자기주도적 진로 개발과 관련한 진로설계 요인에 대해 가장 낮은 중요도를 가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음으로 학생 집단의 경우 진로개입 네트워크 요인에 대하여 낮은 중요도를 가지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학생 집단의 경우 진로탐색과 진로설계 영역을 진로 지도자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직업지도(다양한 직업 세계의 이해 등), 진로교육(진로설계와 목표 설정이나 자기주도적 진로개발 로드맵 구성 등) 영역이 진로상담과 진로개입 네트워크(일자리 박람회 및 워크숍 정례화) 영역보다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는 김지영·임수진·김형남(2016)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학교 및 학과 차원에서는 일자리 정보 제공이나 취업 알선 등과 같은 직접적인 개입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학생이 주도적으로 진로준비를 위한 참여와 실천 전략을 계획하기 위한 가이드라인과 방향성을 제공하는 역할이 우선 시 되어야 함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주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 하위요인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호텔·관광 전공 분야 진로 동아리 또는 커뮤니티 활동 지원(1순위)과, 호텔·관광 분야 진로 멘토링(2순위)의 요소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활동으로 평가되었다. 이어서, 호텔·관광기업 인사의 취업특강, 담당자 토크, 모의면접 지원(3순위), 호텔·관광분야 전문지식 배양을 위한 전공 특화 취업특강(4순위), 호텔·관광 기업체의 기관 방문과 인턴십 프로그램(5순위), 호텔·관광 분야 전공 특화 취업진로 행사 및 진로캠프(6순위)로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반면 호텔·관광 전공 특화 일자리 박람회 및 채용설명회, 호텔·관광 분야의 다양한 직업 세계 이해, 호텔·관광분야의 스타트업 창업특강과 같은 활동에 대한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대학 및 학부과정에서 실시되는 진로개입 영역 및 요소에서 호텔·관광 전공 대학생과 진로지도자 간의 관점에 따라 진로개입 요소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에는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학생 집단의 경우 호텔·관광 분야 진로 멘토링(1순위), 호텔·관광 전공 분야 진로 동아리 또는 커뮤니티 활동 지원(2순위), 호텔·관광분야 전문지식 배양을 위한 전공 특화 취업특강 운영(3순위), 호텔·관광 분야의 대/내외 비교과 활동 및 탐색 및 활용(4순위), 호텔/관광기업 인사의 취업특강, 담당자 토크, 모의면접 지원(5순위) 등과 관련하여 상대적 중요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 지도자 집단의 경우 호텔·관광 전공 분야 진로 동아리 또는 커뮤니티 활동 지원(1순위), 호텔·관광 분야 진로 멘토링(2순위), 호텔/관광기업 인사의 취업특강, 담당자 토크, 모의면접 지원(3순위), 호텔·관광 기업체의 기관 방문과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4순위), 호텔·관광 분야로의 구체적 진로 설계와 진로 목표 설정(5순위) 등의 순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두 집단 간 영역별 세부 요소 간의 차이는 크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경우 진로역량 강화, 진로기술관리 및 진로탐색과 진로설계 영역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진로 지도자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로탐색 요인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진로 준비에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갖추기 위해 학생 스스로 희망 진로에 대한 역량 향상 프로그램에 긍정적인 참여와 지원을 희망하고 있음

확인 할 수 있는 결과이다. 자신의 진로와 직업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개인의 적성과 흥미는 매우 중요하다(진경미, 2022). 따라서 대학 또는 학과에서는 학년별 진로개입 단계 설정을 통해 개인의 적성과 흥미 또는 관련 분야의 직무 탐색 활동 이후, 자기 주도적 직로설계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로드맵을 개발/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학생 집단의 경우 진로개입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 진로 지도자 집단의 경우 호텔·관광 기업체의 기관 방문과 직무체험 프로그램과 같은 진로개입 네트워크 요인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었다. 진로 지도자 집단의 평가처럼 다른 학문과는 달리 관광관련 학과의 교육과정은 이론교과목과 더불어 실습이나 직무체험 경험과 같은 실무 교육과정 역시 소홀이 할 수 없는 학문적 특성을 지닌다(정강국, 2019). 진로 결정을 위해서는 자신의 직업관에 대한 탐색과 함께 진로 선택의 기회를 넓힐 수 있는 다양한 분야로의 직업체험 기회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Krieschok, Black & McKay, 2009).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로개입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학생들이 다소 낮게 인식하고 있었던 점은 김선정·윤유식(2019)과 박가열(2009)의 지적처럼,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취업 박람회나 채용설명회, 인턴십 연계 등의 활동이 대부분 실속이 없이 형식적 이벤트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동시에, 대학 또는 학과에서는 일자리 박람회나 채용 설명회, 기업체 방문이나 창업 특강과 같은 일자리 정보제공 프로그램의 경우 대학 전체가 아닌 학과 차원에서의 진로 개발 교과목 편성을 통해 관련 진로분야의 산업 현황, 직무 수준, 필수 역량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직무 체험이나 기관방문 등의 활동을 포함하는 학사 활동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실시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진로상담 요인의 경우 두 집단 모두 낮은 중요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진로상담과 진로결정수준은 직접적 영향이 없는 것으로 밝히고 있는 조명기·이주희(2018) 및 이재창·박미진·김진희(2007)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진로상담을 통하여 자아정체감을 정립해 주면 진로결정수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조명기·이주희, 2018), 진로상담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 진로결정수준에는 차이가 없으나, 진로준비행동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재창·박미진·김진희, 2007). 또한, 진로상담과 같은 진로개입은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 개인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진로나 직업을 결정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심유지, 2021).

그러나 이미선·김한나(2019)의 지적처럼, 진로상담 관련 프로그램의 경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지거나, 개인 보다는 집단 상담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해당 학과의 전공자가 아닌 진로 지도자의 경우 학생들의 전공분야에 맞는 진로 방향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이미선·김한나, 2019). 때문에 학생들이 진로상

담에서 기대하는 진로 설계나 계획에서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인식에서 이 같은 결과가 비롯된 것으로 이해되어진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전공 교수와 진로지도 실무자 간의 학과별 진로상담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공분야와 관련된 진로상담 및 진로개입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재창·박미진·김진희(2007)는 진로가 미결정인 상태일수록 진로상담에 대한 역할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의 연구대상자는 3~4학년 호텔·관광 전공 학생들로 박영기·김민준(2022)의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듯이 졸업 시기가 가까워져 이미 진로 결정 수준이 높음에 따라 진로상담에 대한 역할을 낮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지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진로지도자 집단의 경우 학생들의 인식과 달리, 진로설계 영역에 대한 중요도를 가장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안정적인 진로 결정에 있어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진로결정을 위하여 단순한 직무 중심의 역량 및 기술 관리만이 아니라 학생들 개개인의 흥미나 가치관을 바탕으로 직업적 가치와 정체성을 구체화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 패러다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하겠다.

이 연구는 호텔·관광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 및 취업 관련 의사결정 과정의 향상을 위해 인재 양성의 역할을 지닌 대학에서 사회적 요구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진로 및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설계/운영하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연구대상인 응답 표본의 확보에 있어서 충분한 보편성을 확보하는데 지역별, 학년별 등의 한계를 지니고 있어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보다 객관적인 표본 선정의 제고가 고려된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분석결과의 일반화를 위하여 전국의 관련 전공 대학생과 졸업생(전공 관련 취업자)을 포함하는 등의 연구 대상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다양한 이론 모델에 기반한 정량연구방법을 병행하여 연구를 진행한다면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진로개입 방안에 대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1) 국내 문헌

- 강경연·강혜영(2019). 대학생 진로개발역량을 위한 진로교과목 교육내용 개발: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32(4), 71-92.
- 김상범(2017). “취준생 “내 인생은 46점” …취업해도 야근·스트레스, 10명 중 8명이 ‘이직...’” . Retrieved 2017.08.10.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1708101151011>, 경향신문.
- 구본기·조희정(2007). 관광기업이 요구하는 인력개발교육과 관광관련 4년제 대학교 교육의 비교를 통한 차이 연구. **관광한국연구**, 2(1), 7-27.
- 김난영(2018). 관광전공 대학생의 취업에 관한 탐색적 연구. **관광진흥연구**, 6(1), 203-217.
- 김미성·김선정·윤유식(2019). 관광·MICE 분야 전공생의 직업가치 세분집단에 따른 직업 존중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취업준비행동의 차이 연구. **호텔관광연구**, 21(3), 286-302.
- 김상범·박수진·이수범(2012). AHP를 활용한 항공사 교육훈련프로그램의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호텔경영학연구**, 21(1), 209-220.
- 김선정·윤유식(2019). 관광·MICE 전공 대학생의 직업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취업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호텔경영학연구**, 28(3), 89-107.
- 김성규·윤희성·김예진·전정환(2015). 대학의 취업지원활동 조사 및 중요도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6(11), 7335-7355.
- 김성남·변정현(2012). 대학생의 구직역량 개발에 대한 요구 분석. **진로교육연구**, 25(1), 91-113.
- 김수진·김진강(2018). 전공선택동기에 따라 진로신화가 진로 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 관광 관련 전공 대학생을 중심으로. **Tourism Research**, 43(1), 27-46.
- 김은애·진성미(2015). 대학생들이 진로 탐색 과정에서 겪는 경험: 근거이론적 접근. **직업교육 연구**, 34(3), 67-90.
- 김은주(2018). 현장실습 만족이 지각된 가치와 진로 결정에 미치는 영향: 전문대학 관광전공 학생들을 중심으로. **관광연구**, 33(3), 1-16.
- 김은주·김민규(2014). 대학신입생의 자율성과 유능성 및 대학생활 만족도 간의 시간에 따른 변화와 상호 연관성에 대한 잠재성장모형의 검증. **청소년학연구**, 21(5), 29-56.
- 김지영·임수진·김형남(2016). AHP분석을 활용한 무용진로개입의 체계적 접근 방안: 직업지도, 진로 교육 및 상담을 중심으로. **한국체육학회지**, 55(6), 661-676.
- 김지효(2016). 대학생들의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진로교육연구**,

29(1), 123-139.

김지효 · 이정은(2016). IPA를 활용한 대학생의 진로교육 요구도 분석: 진로결정상태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8), 851-878.

나리길 · 배소영(2021).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과 취업불안이 호텔관광전공 대학생들의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관광레저연구**, 33(7), 275-291.

노정희 · 최진영 · 장지영(2015). 관광 관련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경험한 진로 교육, 전공 만족도, 진로 결정상태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관광학연구**, 39(7), 123-140.

박가열(2009). 대학생 진로개발 역량을 위한 교육요구 분석. **진로교육연구**, 22(2), 181-198.

박영기 · 김민준(2022). 대학생의 전공선택 동기가 학업만족 및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 관광 · 호텔전공 학생을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34(2), 333-349.

박인주 · 김화진(2015). 항공서비스전공 대학생의 진로 결정 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 관계에서 전공 만족의 매개효과. **관광연구**, 29(6), 83-101.

방한승 · 최우성 · 임상헌(2017). 관광 관련 전공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이 대학생 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에 대한 연구. **관광경영연구**, 21(3), 1-28.

방희원 · 조규판(2018). 대학생의 전공 만족도와 취업불안 간의 관계에서 진로 결정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 **교육문화연구**, 24(2), 101-116.

백지영 · 이기종(2017). AHP기법을 활용한 항공사 객실승무원 교육훈련 내용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저널**, 31(3), 93-104.

심유지(2021). 진로미결정 대학생의 비대면 개인 진로상담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청소년상담학회지**, 2(1), 5-25.

안소연 · 오영주 · 임은순(2017). 관광학과 대학졸업자의 전공만족, 진로탐색행동, 취업준비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의식산업학회지**, 13(3), 203-219.

안소현 · 김남현 · 이충기(2015). AHP를 활용한 한류관광 활성화 요인 도출과 우선순위 분석. **관광학연구**, 39(7), 107-122.

오현주 · 오성욱(2022). 미취업 청년층의 진로탄력성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구직태도 및 구직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지**, 6(2), 47-72.

윤혜영 · 장은영 · 박빛나(2017). 대학생 진로발달수준별 진로서비스 요구분석. **한국사회과학연구**, 36(2), 33-65.

이미선 · 김한나(2019).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진로상담이 전공일치 취업결정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취업진로연구**, 9(1), 33-53.

- 이양구·권형일(2015). 계층화 분석법을 활용한 학생선수의 체육·스포츠 진로 결정유형 분류 방안 탐색.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22(2), 41-57.
- 이재곤·임경환(2017). 지속가능한 문화적 관광지 재생 활성화 방안. **관광경영연구**, 21(2), 85-104.
- 이재창·박미진·김진희(200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이 진로상담에 대한 기대감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0(2), 111-127.
- 이정실(2006). AHP를 이용한 호텔 레스토랑 선택속성의 우선순위분석. **관광연구**, 21(3), 81-95.
- 이정실·박봉규(2014). AHP를 이용한 카지노 선택속성에 따른 선택대안 평가에 관한 연구 : 제주도 카지노 방문 외국인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26(9), 365-378.
- 이한경(2016). 체육전공 대학생의 전공 만족과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에서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1(3), 75-87.
- 이후석(2010). 관광산업의 지역혁신역량 지수개발에 관한 연구 -강원도, 전라북도를 사례로. **관광학연구**, 34(1), 237-254.
- 임은미(2011). 대학생의 진로결정 과정과 개입요인 탐색. **상담학연구**, 12(2), 447-466.
- 정강국(2019). 대학에서의 관광교육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년제 대학을 중심으로. **관광연구**, 34(1), 61-79.
- 정미연·김형곤(2019). 환대산업전공학생들의 인턴십 중요도: 성취도 불일치가 직업선택 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저널**, 33(2), 95-109.
- 정영미(2019). 진로장벽 지각이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항공관광전공 여대생 중심으로. **관광경영연구**, 23(6), 717-738.
- 정윤경·방혜진·최진영(2017). 대학생 진로상담 방안 : 진로고민 유형 및 진로상담 절차를 중심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7-26.
- 조명기·이주희(2018). 대학생의 진로상담에서 진로결정수준 향상을 위한 상담성과의 구조적 관계. **상담학연구**, 19(1), 155-175.
- 주진영·남정민·이슬기(2022). AHP를 활용한 액셀러레이터의 산업별 투자결정요인 우선순위에 대한 연구.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지**, 6(1), 1-22.
- 진경미(2022). 전공선택동기, 진로결정수준, 취업준비행동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 21, 13(1), 1299-1310.
- 진진희·조민호(2019). 정서발달이론을 적용한 호텔인턴의 진로선택의도 연구. **관광학연구**, 43(4), 91-114.
- 천민호(2017). 관광전공 대학생의 관광답사만족이 학과몰입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관광레저연구**, 29(10), 151-165.

- 최귀덕(2002). 전문대학 관광계열학생들의 직업의식분석자료를 통한 진로지도방안, **문화관광연구**, 4(2): 527-552.
- 최규환·정호균(2018). 진로 결정모델에 있어 네거티브 요인 도출 및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관광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관광경영연구**, 22(5), 1-22.
- 최영준(2022). 대학의 진로교육 만족도와 영향요인 분석 연구: 인문·사회계열을 중심으로.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지**, 6(3), 161-177.
- 최윤정(2012). 중학생들의 진로교육 경험에 의한 진로교육 개입 유형 탐색 및 유형별 성과 차이. **진로교육연구**, 25(2), 21-41.
- 한국고용정보원(2017). *2014 대졸자 취업정보: 2~3년제 대학교, 4년제 대학교*. 충청북도: 고용노동부.
- 한국교육개발원(2018). *취업통계연보 2018*. 충청북도: 교육부.
- 한시완(2016). 합의적 질적연구 방법을 적용한 고등학교 학생선수의 진로교육개입 성과 탐색. **한국여성체육학회지**, 30(2), 17-36.

(2) 국외 문헌

- Abdullah, N., Hussin, N., Shonubi, O. A., Ghazali, S. R., & Talib, A. M.(2018). CAREER DECISION-MAKING COMPETENCE, SELF-KNOWLEDGE, AND OCCUPATIONAL EXPLORATION: A MODEL FOR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ECHNICAL EDUCATION AND TRAINING**, 10(1), 71-81.
- Curry, B., & Moutinho, L.(1992). Environmental Issues in Tourism Management: Computer Modelling for Judgmental Decis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Service Industry Management**, 3(1), 57-69.
- Hassan, M. H., & Lee, J.(2019). Policymakers' perspective about e-government success using AHP approach: Policy implications towards entrenching good governance in pakistan. **Transforming Government**, 13(1), 93-118.
- Joshi, S., Sharma, M., & Singh, R. K.(2020). Performance evaluation of agro-tourism clusters using AHP-TOPSIS. **Journal of Operations and Strategic Planning**, 3(1). pp.7-30.
- Komarraju, M., & Nadler, D.(2013). Self-efficacy and academic achievement: Why do implicit beliefs, goals, and effort regulation matter?.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25(1), 67-72.
- Krieschok, T. S., Black, M. D. & McKay, R. A.(2009). Career decision making: The limits

- of rationality and the abundance of non-conscious process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5(3), 275-290.
- Lynn, M. R.(1986). Determination and quantification of content validity. **Nursing Research**, 35, 382-385.
- Milsom, A., & Coughlin, J.(2015). Satisfaction with college major: A grounded theory study. **NACADA Journal**, 35(2), 5-14.
- Oliver, L. W., & Spokane, A. R.(1998). Career intervention outcome: What contributes to client gai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5, 447-462.
- Saaty, H.(1982).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 new approach to deal with fuzziness in architecture. **Architect Science Review**, 25(3), 64-69.
- Saaty, T. L.(1979). Applications of analytical hierarchies. **Mathematics and Computers in Simulation**, 21(1). 1-20.
- Stead, G. B., LaVeck L. M., & Hurtado Rúa S.M.(2022). Career Adaptability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Meta-Analysis.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49(4), 951-964.

<ABSTRACT>

An Analysis of Career Intervention Priorities for the Career Competency Development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Tourism*

Kim, Bo-Kyung**, Kim, Mi-Ky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o intervene with career paths systematically for career guidance targeting students by examining the importance and order of priority of areas for career intervention stressed in the perspectives of undergraduates of tourism and career guides.

To address the goal, this author conducted an AHP-based survey on opinion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restricted to juniors and seniors of tourism attending universities in Daegu or Gyeongbuk and also professors of the major and career/employment-related guides in the universities.

According to the findings, two groups, students and career guides, chose the factors of career competence enhancement and career skills management as the most important ones in comparison while career counseling-related factors were found to be the least important. Also, the group of career guides selected the factors of career intervention networks as crucial factors whereas the group of students evaluated the factors of career exploration relatively more importantly, which shows a gap between the two groups.

This study will provide foundational material for universities having roles for manpower cultivation so that they can develop the curriculum based on not only social demand but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19S1A5B5A07106195)

** First author, Research Professor,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Daegu Catholic University, bokyung83@hanmail.net

***Communication author, Professor, Dept. of Hotel Convention, Daegu Catholic University, mkagnes@cu.ac.kr

students' needs and have opportunity to design and operate programs for career and employment connection in order to improve the process that undergraduates of hotels or tourism make decisions about their career paths or employment.

Keywords : Analytic Hierarchy Process, Career Invention, Career Decision, Hotel and Tourism Major